

민주통합당 쏠다 '흥행 대박'

지도부 선출 선거인단 79만명 접수...정당 사상 최대 규모

30~40대가 절반...수도권 59% 호남 22%

민주통합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정당 사상 최대 규모인 79만2273명으로 집계되면서 '흥행 대박'을 터뜨렸다. <관련기사 4면>
8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9시까지 선거인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선거인단은 대의원 2만1000명, 시민 64만3353명, 신참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당비 당원 12만7920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당 사상 최대 규모며 민주통합당이 당초 예상한 25만~30만명보다 2~3배 이상 많은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모바일 투표 신청자 비율이 88.4%에 달했으며 선거인단 신청 방법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접속자가 62.7%에 달해 '20~40세대'가

대거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과 40세 이상의 비율이 44.4%와 55.6%로 집계됐으며 30대~40대의 참여는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 선거인단은 신청지역이 파악된 일반시민 선거인단 57만5148명 중 서울이 20만19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1만6128명, 인천 2만3493명 등 수도권이 59.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남 5만1036명, 광주 4만307명, 전북 3만9428명 등 호남이 22.7%, 부산(1만7628명)·경남(1만2392명)·대구(1만1914명)·경북(8193명)·울산(5381명) 등 영남이 9.7%였다.
이번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은 대

의원투표 30%와 당비당원 및 시민 선거인단 투표 70%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시민 선거인단 가운데 모바일 투표를 희망한 사람이 88.4%를 차지했고 나머지 11.6%는 투표소 투표를 신청했다.
민주통합당은 원래 9~11일 사흘간 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선거인단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초과하자 투표 기간을 14일까지 연장했다.
민주통합당은 당비 당원 투표와 관련, 우선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되 모바일 투표에 실패할 경우 현장투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의원은 전원 현장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모바일 투표 결과와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을 넘는 30~40대 표심이 당락을 판가름할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일반 시민의 선거인단 참여가 64만

명에 이르러 조직선거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경선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당권 주자는 물론 합종연횡과 함께 '못지 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노총, 정봉주 팬클럽,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의 흥행 대박에 대해 정치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정당의 지도부 선출이 당원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민 및 당비당원 투표 결과는 14일 투표가 끝나는 대로 미집계 상태로 이동식 디스크(USB)에 담겨 참관인들이 지키는 가운데 모처에 보관되며, 15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가 끝나면 함께 집계돼 공개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서구 동천동 한 5층 건물 옥상에 건축물이 무단 증축돼 버섯이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 옥상의 불법 건축물들은 대부분 소방시설을 갖춰주지 않아 소방법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불법건축 판치는 문화수도

심 위법 실태

“법 지키면 바보” 증축 난장판

46%가 위법...적발돼도 이행금 내고 버터

광주지역 건축물 상당수가 무단 증축,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불법 개조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도심지역 다가구주택(원룸) 대부분은 가구 수를 편법으로 늘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광주시 위반건축물 일제정비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 건축관계 전문가, 시·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2010년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 건축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8개소로 점검대상 83건의 46%에 달했다.
점검대상 선정이 무작위로 이뤄졌고 이미 설계·감리 과정을 거쳐 사용승인된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지역 신규 건축물 중 절반 가까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위법 건축물을 유형별로 보면 무단 증축이 가장 많았으며 구조 변경, 컨

테이너 무단 설치 등 전방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적발된 광주시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용도변경, 무단 증축, 전면 개조를 통한 가구수 증가 등 무려 5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 건축이 난무하고 있는 데는 허술한 승인제도와 건축사의 윤리 의식 실종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에 관한 설계·감리·사용승인 등을 건축사나 건축사인원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 건축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8개소로 점검대상 83건의 46%에 달했다.
점검대상 선정이 무작위로 이뤄졌고 이미 설계·감리 과정을 거쳐 사용승인된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지역 신규 건축물 중 절반 가까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위법 건축물을 유형별로 보면 무단 증축이 가장 많았으며 구조 변경, 컨

터이너 무단 설치 등 전방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적발된 광주시 동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용도변경, 무단 증축, 전면 개조를 통한 가구수 증가 등 무려 5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 건축이 난무하고 있는 데는 허술한 승인제도와 건축사의 윤리 의식 실종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에 관한 설계·감리·사용승인 등을 건축사나 건축사인원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 건축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8개소로 점검대상 83건의 46%에 달했다.
점검대상 선정이 무작위로 이뤄졌고 이미 설계·감리 과정을 거쳐 사용승인된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지역 신규 건축물 중 절반 가까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위법 건축물을 유형별로 보면 무단 증축이 가장 많았으며 구조 변경, 컨

돈봉투 폭로 고승덕의원 소환

검찰, 살포자 추궁...특정인 거명땀 우선 소환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8일 의혹을 폭로한 고승덕(55·서울서초출)을 한나라당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고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1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 출두했다.
고 의원은 '검찰에서 모두 밝힐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의원이 된 이후 어느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거절한 적이 있다'고 기존 언급을 재확인하면서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어느 후보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돈을 건넨 후보 측과 실제로 돈봉투를 돌린 사람이 누구인지,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시점과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18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2011년 세 차례 열려 박희태 국회의장, 안상수·홍준표 의원이 각각 대표로 선출됐으며, 고 의원은 이 중 가장 최근 전대는

아니라고 밝혀 의혹 대상자는 두 명으로 압축된 상황이다. 하지만 박 의장과 안 의원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고 의원이 해당 전대에서 선출된 대표와 돈봉투를 건넨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할 경우 이 인사들을 우선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박 의장은 이날부터 10박11일 일정으로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서 만일 박 의장이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면 귀국 이후로 조사가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고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당내 인사를 거론한다면 파문이 겹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광신대학교
2012년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2.01.13(금)까지
www.kwangshin.co.kr
입학문의 (062) 605-1112 (062) 605-1023

전남 역대부농 2753농가

2010년 보다 37% 늘어...축산농 46%

전남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역대 부농들이 2700여농가에 이르고 영암에만 300농가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친환경 농업 등 진보된 영농기술 습득과 품목별 조직화·규모화 등이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8일 지난해 고소득 농업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753농가가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2014농가에 비해 739농가(37%)나 증가한 것으로, 역대 부농은 지난 2006년 850농가에서 ▲2008년 990농가 ▲2009년 1438농가 ▲2010년 2014농가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축산업이 1269농가(46.1%)로 가장 많았고 식량작물 765농가(27.8%), 채소 308농가(11.2%)가 뒤를 이었다. 또 과수 142 농가(5.1%), 가공·유통 118농가(4.3%), 특용작물 51

농가(1.9%), 화훼 30농가(1.1%) 순이었다.
특히 친환경농업으로 역대 부농 반열에 오른 농가가 942농가(34%)로 전년(575농가)보다 증가하는 등 친환경 농업 기반이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82.4%(2270농가), 2억원 이상 3억 미만 277농가(10.1%), 3억 이상 5억 미만 146농가(5.3%), 5억 이상 10억 미만 50농가(1.8%) 등이며 10농가는 10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영암이 302농가로 가장 많았고 고흥(253농가), 나주(224농가), 강진(223농가), 해남·영광(202농가), 무안(200농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치단체는 '1억농 CEO 육성계획'이나 '부농 만들기 프로젝트'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김지율기자 dok2000@

올 설에는 **별역력**을 선물하세요

※건강기능 식품(총상성분함유제형)
고려상당신 1588-2304, 060-041-0303 유정기반 원료에 사용된 원료

(주)한국인삼공사

2012 정관장 새해맞이 대축제

<행사기간: 2012년 1월 6일~1월 22일>

정관장 추천상품

- 홍삼정물(240g)**
저온균열과 홍삼의 영양 성분을 유지하고 부드러운 맛과 향이 우수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상품가 198,000원)
- 홍삼분말(40mg/30회)**
일상 홍삼음료에 대용, 당기 등 식품 원료를 조화시킨 생소독 홍삼분말을 함유하여 하루 한번 섭취하면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 기력회복, 개성도움을 줍니다. (상품가 160,000원)
- 진(眞)애물 드리다**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홍삼제품을 즐기실 수 있도록 홍삼마시멜로, 홍삼음료, 홍삼음료로 구성된 선물세트입니다. (상품가 200,000원)
- 어홍세트**
홍삼의 기미개선과 피부미용이 가능한 홍삼분말과 생미정원분말 구성으로 영미의 빛이 될 수 있는 선물세트입니다. (상품가 100,000원)
- 보은세트**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가장 대중적인 홍삼제품만을 구성하여 처음 홍삼을 접하는 분께도 권할 수 있는 선물세트입니다. (상품가 85,000원)
- 다연세트**
홍삼의 효능과 여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고급 차(茶) 선물세트입니다. (상품가 48,000원)

※정관장 가맹점 사업자 모집안내(2012년 1월 26일까지), (주)한국인삼공사 홈페이지 (www.kgc.or.kr) 참조